

IS, 인질 고토 참수 영상도 공개... 日 충격

일본인 상대 후속 테러 위협

아베 “테러에 굴복 안해”

국제사회도 규탄 잇따라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後藤健二·47) 씨를 참수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1일 공개했다. 지난달 24일 고토씨와 함께 붙잡고 있던 또 다른 일본인 인질 유카와 하루나(湯川遙菜·42) 씨를 참수했다고 밝힌 지 8일 만이다.

IS는 한국시간 이날 오전 5시께 고토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살해됐음을 보여주는 1분여 분량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AFP와 NHK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정부에 대한 메시지”라는 영어 문자로 시작하는 영상에서 고토 씨로 추정되는 남성은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있고, 복면을 하고 칼을 든 채 그의 옆에 선 남성은 일본 정부가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러 서방 인질 참수 영상에 등장했던 ‘지하드 존’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영국 남부 역양의 영어로 “일본 정부는 사악한 국가연합에 참가한 어리석은 동맹국(대 IS 공습 참가국 지칭)처럼 ‘이슬람 칼리파 국가(IS)’의 힘과 권위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우리 군은 너희들의 피에 굶주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베 총리여,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참가한 무모한 결정에 의해 이 칼은 고토 겐지를 죽일 뿐 아니라 앞으로 당신의 국민은 어디에 있던 살해될 것”이라며 “일본의 악몽이

시작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고토 씨 추정 인물이 살해된 이후 모습을 담은 정치 화면이 등장했다. 또 영상 왼쪽 상단에는 IS의 홍보부서가 성명 등을 발표할 때 사용하는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영상의 신빙성이 높다는 1차 판단 아래 분노와 규탄의 메시지를 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무도하고 비열하기 그지 없는 테러행위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용납이 어려운 폭격을 단호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또 중동 지역에 대한 식량지원, 의료지원 등 인도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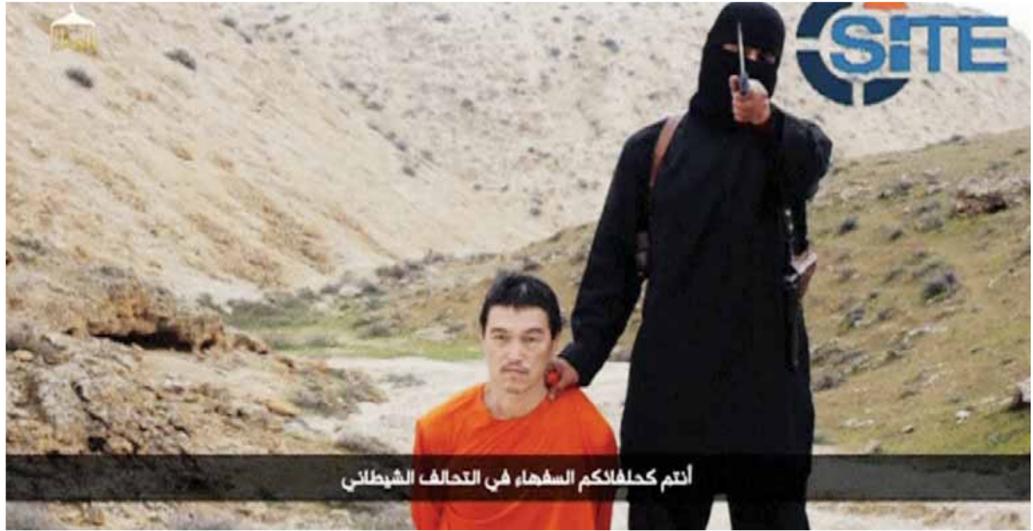
국제사회도 IS에 대한 규탄 대열에 동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저널리스트인 고토 씨는 시리아 국민이 겪는 고통과 시련을 외부 세계에 용감하게 알리려 했다”며 “일본 국민과 함께 테러리스트 단체인 IS의 아만적이고 악랄한 행동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성명을 통해

“고토 씨를 끔찍하게 살해한 것은 IS가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악마의 화신임을 다시 일깨워준다”고 비난했다.

IS는 지난달 20일 일본인 유카와 씨와 고토 씨 등 2명의 영상을 공개하며 72시간 안에 2억 달러를 주지 않으면 이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일본 정부가 몸값 요구에 응하지 않자 IS는 지난달 24일 유카와 씨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복면을 하고 칼을 든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대원이 1일 오전 5시께(한국시간)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47)씨로 추정되는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은 남성을 무릎 꿇린 뒤 “일본 정부가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지자체 풀뿌리 교류 확대”

이낙연 지사, 지사회의서 제안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 30일 ‘제5회 한일지사회’에서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증진을 위해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풀뿌리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한일지사회 참석 후 31일 강항 유적지 및 세토나카이 시마나미해도, 1일 가가와현의 섬 나오시마 등을 방문한 뒤 귀국했다.

도쿄에서 열린 제5회 한일지사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한 한국 측 6명의 시도지사와 일본 측 야마다게이치 교토지사를 비롯한 7명의 도도부현지사 등 13명의 한일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국 지방정부 간 지역경제·관광·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지사는 “올해는 한일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래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해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한·일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한일수교 50주년 기념 지방자치포럼 개최를 검토하기로 하고, 제6회 회의는 2017년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이 지사는 이어 31일에는 일본 에히메현 오즈시에 있는 강항 선생 유적지, 자전거 도로로 유명한 시마나미 해도를, 1일에는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사업의 모델이 되는 가가와현의 섬 나오시마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29일 여수 금오도 비렁길을 시작으로 지난 1월25일 경남 거제시 외도까지 국내 섬 21개를 방문한 바 있다. 주민 3000명이 거주하는 나오시마는 ‘베네체’라는 지역 기업과 주민들의 협업체계를 통해 ‘예술의 섬’으로 변모한 후 연간 50만명이 찾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공유문화도시’ 첫걸음

오늘 공유축진위원회 출범

“개인과 공공기관의 소유물을 나눠 쓰는 공유문화도시 구축에 동참합시다.”

광주시가 개인이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간, 물품, 지식과 정보 등을 함께 나눠 쓰는 ‘공유(共有·share)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첫 걸음에 나선다.

광주시는 2일 공유축진위원회 출범식을 하고 위원장 선출, 올 추진계획 보고 등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대장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 회의실의 무료 예약장 사용 등과는 달리 공유의 개념을 시장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는 처음이다.

공유 프로젝트는 추진위를 중심으로 사업범위와 대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한다.

광주시청 등 공공기관 청사와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공유 공간으로 우선해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본청과 사업소 등 44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세미나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회의실과 공연장, 체육시설, 주차장, 지하철 역사, 유희공간 등은 272곳에 달했다.

회장은 공동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 1457곳이며 공공기관과 교회 주차장은 100곳에 5071대 수용 규모다.

그러나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 공간, 내 물품’을 선뜻 내놓겠다는 공동체 정신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가 우선 마련돼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큰 공공기관을 우선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우선 지자체와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공유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며 “공유문화, 공유경제는 나눔의 미학이 넘치는 광주 공동체 정신의 실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IS, 파키스탄 사원 폭탄

61명 사망·50여명 부상

파키스탄에서 지난 30일(현지시간)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연계한 세력인 시아파 사원을 폭탄으로 공격해 61명이 사망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남부 신드주 시카르푸르의 한 시아파 사원에서 금요일에 도중 폭탄이 터져 61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사원에는 당시 600여명의 신자가 있었으며 폭발로 사원 지붕이 일부 무너지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익스프레스 트리뷴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 경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이 폭탄이 든 소피백을 사원 안에 두고 나갔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몇몇 신도는 폭탄 조끼를 입은 남성을 봤다며 자살폭탄 공격이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탈레반의 한 분파였다가 지난해 11월 이슬람국가(IS) 지지를 선언한 수니파 무장단체 ‘준돌라(신의 아들이라는 뜻) 이븐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희범 문체부 1차관 돌연 사표에 추측 무성

문화전당 특별법 정부안 관철 못해 문책?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 30일 사임을 공식 발표한 뒤 그 배경이 관심사다.

지난 23일 사의를 표명한 뒤 출근하지 않던 김 차관은 문체부 대변인실을 통해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 분들을 모시고 대통령님과 더불어 문화융성을 위한 과업에 동참할 수 있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1차관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취임한 지 6개월여 만으로 돌연 사임하는 배경은 아직 정확히 확인된 게 없다.

김 차관은 발표한 사임의 글에서 “개인적인 역량 부족으로 인해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가 수리되는 순간까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사임 배경에 대해 ▲ ‘아시아문화전당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 정부의 견해를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데 따른 문책설 ▲ 문체부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 1차관의 입지 축소에 따른 대응설 ▲ 김종덕 문체부 장관과 김종 2차관과의 불화설 등이 돌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통과한 ‘아시아문화전당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안 대신 야당이 제시한 안이 상당히 반영된 절충안이었다.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여전히 그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는 이 같은 원인이 사임 배경이었는데 이 역시 경로로 알아봤으나 확인하지는 못했다. 만일 정부안을 관철하지 못한 문책설이라면 광주지역 여론에 핫이슈로 등장할 개연성도 있다.

또 다른 사임 배경으로 거론되는 입지 축소설은 김종덕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이뤄진 문체부 조직 개편으로부터 나온다. 기존 4실 6국을 6실 체제로 바꾸면서 차관 업무도 대폭 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체 조직과 예산의 70%가 2차관에 집중되고 1차관은 입지가 많이 축소돼 항의 차원에서 사임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은 최근 문체부가 연달아 겪고 있는 인사 파동 끝에 나온 것이어서 더 많이 많다. 앞서 지난해 7월 유진용 전 장관이 청와대와 갈등 끝에 취임 6개월 만에 경질된 데 이어 김종덕 장관 취임 직후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와 그 중 3명 사표 수리가 이어졌다.

박지경기자jz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